10과. 물고기 뱃속의 요나

다 같이 성경 요나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 4: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 성경은 여러 차례 공부했던, 많이 공부했던 성경이고 아마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 있는 성경인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교제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과 요나의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잠깐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주제를 좀 잡아 봤습니다.
요나서 전체의 핵심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방금 읽은 4장 10절 11절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핵심 사상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방금 같이 읽은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마 이 내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요나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요나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시선도 혹시 요나와 같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심령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아오는 수단으로 사용된 민족이 이스라엘일 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 할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민족도 빼놓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족속을 염두에 두고 그 출발점으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민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도 그 죄를 인하여 망하게 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나죠. 만약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로 심판하셨을 겁니다. 요나를 보내지 않으셨을 거 에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 요나를 그 니느웨 일부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메신저를 보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상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니느웨는 100년 후에 멸망당했습니다. 나훔서에 니느웨의 멸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이 있기 전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준 전도자가 있을 겁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 누가 나를 전도했을까? 아마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도 있고 아는 지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인을 보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내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건 특별 계시를 통해서건 한 번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더 그런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당과 전도자와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 기회가 왔고 나는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그 지혜를 부여잡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냐? 물론 아닙니다. 나에게 전도자가 왔기 때문이고 그 이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이고 그 이전에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죠. 나에게 전도자가 보내진 것도 정말 감사할 만한 사랑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전도자가 왔죠. 마찬가지로 니느웨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악독하다는 것은 여러 번 공부했잖습니까? 산체로 사람의 혀를 뽑고, 손발을 자르고 목으로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공포 정치를 폈죠? 우리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는 압제를 당치 않고도 압제를 했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보다 못해 하나님이 18만5천명을 하루아침에 죽게 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보다 더 컸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사람의 목을 베어서 탑을 쌓을 만큼 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죄인들도 용서할 만큼 사랑이 컸다라는 거 에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요나에게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라고 명령

을 내렸습니다. 소명을 주신 거죠. 일어나, 가서, 쳐서, 외쳐라. 수백km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일어나서, 가서, 쳐서, 외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된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일어나 가서 쳐서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요나라는 거 에요 그렇다면 요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니느웨로 달려가서 쳐서 외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직분과 사명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 자신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요나는 죄인은 마땅히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 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상관이 없고 뒤로 한 채 도망갔습니다. 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케 하기위해서 먼저는 요나를 회개케 하죠. 하지만 사실 요나도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요나도 죄인이거든요. 요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또한 죄인이잖아요. 니느웨를 바로 심판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도망갔을 때 바로 심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요나를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 끈질긴 하나님의 추적을 한 번 보십시오. 배타고 도망가는데 첫 번째 풍랑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두 번째 선장을 보내서 그 사람을 책망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비를 뽑게 해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했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자 요나가 화를 내니까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고 동풍이 불게 하셨고 또 벌레도 보내셨고 최하 8가지 사항을 한 사람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 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간 한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8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들어가 있고 자연도 들어가 있고 벌레도 들어가 있고 식물도 들어가 있고 동풍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개케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나를 회개케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준비하셨습니까? 사실은 성경이 내 손에 들어온 것 만 해도 엄청난 그 피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잖아요?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엄청난 환란과 역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잖아요. 내가 단 번에 구원 받았으면 다행인데 많은 배척을 통해서 결국 마지못해 그 사랑에 눌려서 구원받았잖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는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번에 요나를 버리실 수도 있지만 요나 한사람을 회개케 하려고 그렇게 많은

환경들을 조성하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 번에 안 되니까 그렇게 두고, 두고, 두고, 두고 여러 가지 식물 교훈을 들어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죠.
이사야서 26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성경 찾는 중) 이사야서 2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11:26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찌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부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주의 손이 높이 들릴찌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부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거 에요. 이사야 당시에 그랬는데 이사야 28장 9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9~10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타락해가지고 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하나님이 많은 징후를 보여 주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럼 막 젖 뗀 아이죠? 막 젖 뗀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쉽게 권면을 해왔습니다. 그가 듣지 않았거든요? 경계를 하다가 안 들으니까 또 경계를 더했고, 교훈을 베풀었는데도 안 들으니까 또 교훈을 더했습니다. 지식도 전해봤는데도 안 들으니까 또 지식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고 했죠? 그래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웬만한 방법 다 통해도 다 동원을해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다른 입술 다른 방언 그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다른 말로 해 보겠다 라는 거 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안 듣겠다고 하는데 그냥 돌아서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열심과 노력으로 그 사람을 회개케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이사

야는 이사야 자신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증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아이를 주신다 그잖아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어깨에 지고 다녔어요. 소 멍에 있잖습니까? 그걸 어깨에 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압제를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 자신을 받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냐는 그 멍에를 꺾어버렸죠. 그럼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쇠 멍에를 만들어서 메고 다니라고 했어요. 쇠 멍에를 만들어 메고 다니는 데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좀 보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한 번 배척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죠. 호세아 때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 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도 돌아오길 원해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랑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했고 애도 낳았습니다. 고멜이 나중에 자기를 떠나고 나니까 버린 게 아니라 또 따라가서 값을 주고 고멜을 사고, 자기 아내로 다시 또 맞아 들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실물로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척했을 때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는 요나를 회개케 했죠. 먼저는 요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했고 결국 니느웨가 회개 했을 때는 구원까지 주셨습니다. 나중에 요나가 짜증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15만여명 있다고 했죠?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세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니느웨에 정말 몰라서 못 믿는 애가 몇 명이나 있나보자 12만명 있다는 것을 셌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관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육축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축에게도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악인이건 불순종하는 요나건 그리고 어린아이건 육축이건 가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그 어린 아이도 또 그 육축도 결국은 돌봐주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욥기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게 없어서 울부짖을 때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데 문제는 그것을 전하는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요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보내신 자니까 하나님의 심령으로 전해야 될 텐데 요나의 마음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냉랭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 행동은 정말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요나는 첫 째 도망갔죠. 그리고 배 밑창까지 들어가서 잠까지 잤습니다. 니느웨가 망하든 말든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복음 전해라고 했는데 요나는 가서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도망가서 잠들었다. 한쪽에서는 지금 그 큰 성읍 니느웨가 망하느냐 아니면 회개해서 생명을 얻느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데 그 일을 맡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잠자고 있다는 거에요. 도망갔고 잠잤다. 잠도 아주 곤하게 잔 것 같아요. 태풍이 불어도 안 깼거든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잠이죠. 나중에 선장이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 자느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요나가 부끄러웠을거에요. 우리 그러잖습니까? 한창 죄 짓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방인이 너 뭐하는 사람이냐? 참 민망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통위반 했는데 딱지 끊으러 와 가지고 딱지 막 끊으려고 하니까 막 대들었대잖아요? 그 순경이 도대체 당신 뭐하시는 분이오? 그 말하니까 벌금내고 왔대잖아요. 미안하다고 됐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묻더래요. 뭐하는 분이냐고? 도대체. 미안하다고. 벌금내고 왔대잖습니까? 요나는 사실 이방인의 빛이 돼야 될 사람인데 이방인한테 혼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이방인에게 빛이 되겠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자기만 죽을 뻔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만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만 죽을 뻔 한 게 아니라 배에 탄 사람 다 죽을 뻔 했고 니느웨 사람 다 죽을 뻔 했죠. 만일 그대로 죽었으면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요나한테 있는거에요. 요나가 니느웨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면 책임이 요나에게 있잖아요. 에스겔 성경에 파수꾼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그대로 죽었으면 그 배에 탔던 이방인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 다 죽었을 것이고 그 피 값을 전부 다 요나가 받았을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 도망가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잘못을 뉘우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냉랭하죠. 요나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3:3~4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저주만 담겨있죠. 그나마 3일 길을 가면서 이 말을 했으면 더 나은데 3일 길을 가야 될 느니웨에서 하룻길만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이틀 길은 가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말한 것은 회개 하라고가 아니라 너희들 다 망한다 죽는다 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전했죠. 냉랭한 가슴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실 저도 전도인이고 그래서 복음을 자주 전합니다. 3주 연속 전도집회였죠(*22:35, 전도집회 했죠인지 잘 안 들림)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마다 마음 상태가 다 달라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한 사람 영혼하고 내 영혼하고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복음 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이거 전하다가 한 사람 구원받고 저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듣는 한사람하고 저하고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전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전할 때가? 그러면요 정말 전하면서 제 자신의 설교에 제가 감동됩니다. 참 이상한 경우인데 말씀 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도 많고 제 자신이 감동이 돼요. 그리고 사랑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전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참 냉랭한 가슴으로 전하는 때도 있거든요?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했는데 전하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정말 내 말이 뜨거운 사랑을 담아서 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건지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그냥 전했는데 구원 받았잖아요? 요나의 공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요나는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그 공로가 요나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냉랭한 마음으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공로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돌아 갈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마음 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냉랭한 마음으로 복음 전할 때요 냉랭한 마음 때문에 눈물 나려고 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데 마음속에는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척 하시렵니까? 라고 말을 전하면서도 내 자신은 그 사랑에 마음을 안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복음 전하고 나서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안 전하는 게 나았을 텐데 이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혹시나 듣는 어린이들이 복음이 냉랭한 것인지 착각할 까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괴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누가 기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줬으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했을 것 같은데 괜히 마음에 원망도 됩니다. 이번 주에 집회를 했는데 누가 기도를 했을까? 왜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냉정한 마음으로 쌀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정말 모든 초등부 교사들이 다 한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해지는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 혼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반기에 집회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 겨울집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광주집회만 4번 정도 했고 어린이집회요 농아선교부 집회라든지 성인집회라든지 이런 것들 했는데 그 집회 할 때마다 매번 마음 속에요 누군가가 좀 기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매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어제 끝났죠? 어제도 집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중간 중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 같다. 어쩜 이렇게 냉정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내가 애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되어서 이 아이들을 구원받게 하고 있는가? 어떨때는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설득하려고 애를 쓸 때도 있습니다. 제발 좀 믿어 달라 그 때 정말 안타깝죠. 요나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냉정한 거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도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는 다시는 안 전하겠다라고 해도 그렇게 안 전할 때마다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전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이 왜 나에게는 없고 요나처럼 냉정한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차서 정말 냉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저주죠.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 니느웨는 선택받은 백성을 압제하는 주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니느웨 백성들 무시하기를 마치 박넝쿨 하나만도 못한 것 인양 무시했잖습니까? 박넝쿨은 아끼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은 무시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없어지면 그 조금 없어진 것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냉랭하냐? 그 말하니까 엣날에 이상재선생님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며느리가 재봉틀을 일본군한테 뺏겨가지고 생계가 막막해 지니까 울었답니다. 재봉틀을 뺏겼으니 세상에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데 이상재 선생이 그랬대잖아요. 너는 나라를 뺏기고도 안 울면서 재봉틀을 뺏기고는 우냐? 그런말을 했다는데요 같은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그 수십만명이 죽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박넝쿨 뺏기니까 차라리 죽겠다고 이야기 하느냐? 그게 합당한 마음이냐? 합당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곧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윤동주의 서시 보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내용이 점 점 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정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자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성경찾는중)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네가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자주하는 말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렇게 전도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냉랭한 태도를 보고 이방인이 되려(*도리어의 방언)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 하실거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로 인해서 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욕을 받는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정말 영혼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영혼을 존귀히 여기는 행동을 하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음을 같이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깨달은 그 영혼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자 이번 주에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아이들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원받은 아이들은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울러 다음 달에도 또 집회가 있습니다. 남부에서도 어린이 집회가 있고 8교구에서도 집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이요한 목사님 이번 수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쟁나면 다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랍사람들은 전쟁나면 다 도망간다고 그러거든요? 전쟁의 승패는 결정 났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다 도망가는 아랍이냐? 목숨을 걸고 다 뛰어든 이스라엘이냐? 복음도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을 때 그 복음이 전해질겁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하계수양회 준비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광주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냉랭한 마음으로 준비해 가지고 광주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전에 농고에서 한 달을 곡괭이질 하면서 영혼 한 사람 더 건지려고 애썼던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그 곡괭이 잡던 손이 이제 펜대 잡고 앉아서 계

획만 한다고 해서 대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은 달려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 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번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역사해 주시길 빌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5월이 되어서 어쩌면 초창기 우리가 학기 초라든지 아니면 신년 1월 1일 날 먹었던 마음을 많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간에 고삐를 다시 부여잡고 다시 한 번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또 이사야처럼 주를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음속에 열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그 열심이 식으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열심이 식은 것 자체가 죄이고 돌이켜야 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없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이 식은 교회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처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일어나서 달려가서 쳐서 외치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심령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